시대·문화적 경계 초월… 음악의 새로운 물결

15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New Wave'

지휘 김영언·소프라노 박소영·바리톤 김기훈 협연

경쾌한 오페레타부터 서정 가곡, 낭만적 왈츠까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갖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5년 신년을 맞이해 다양한 음악적 언어로 청중들에게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다.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리는 광주시향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다. 경쾌한 분위기의 오페레타부터 서정적 분위기의 가곡, 낭만적인 왈츠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공연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김영언의 지휘와 소프라노 박소영, 바리톤 김기훈의 감동적인 협연으로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바리톤 김기훈(왼쪽)과 소프라노 박소영.

소프라노 박소영은 서울대 성악과 수석, 음악대학 차석 졸업 후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했다. 2013년 보스턴 리릭 오페라 '밤의 여왕' 역으로 데뷔 이후 10여개의 국제적 오페라단에서 연기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며 경희대 초빙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바리톤 김기훈은 연세대 음대 수석 졸업, 독일 하노버 음대 석사 만점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2021년 영국 BBC가 주최하는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우승했다. 젊은 성악가로서 해외 무대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6년부터 3년간 독일 하노버 슈타츠오퍼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는 성악가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바로크시대 화려함과 우아함을 생생히 전하는 헨델의 '수상음악 알라 혼파이프'로 막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박소영의 협연으로 아르디티의 '입맞춤'과 한국 가곡 '강건너 봄이 오듯', 현대적 서정과 깊이를 표현한 명작인 에릭 휘태커의 'October'를 연주한다.

2부는 경쾌한 오페레타로 시작한다. 첫 곡인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이 유머와 활기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바리톤 김기훈이 생동감 넘치는 음악성으로 로시니의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레온카발로의 '신사 숙녀 여러분'을 선사하며 오페라의 극적 매력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가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신년음악회 'The Wave'로 음악의 시대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새해에도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는 교향악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2025 그린국악'… '가치에 같이를 더하다'

내일부터 토요가무악희 무대

전남도립국악단이 '가치에 같이를 더하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토요 가무악희 '그린국악' 2025년 시즌을 연다.

오는 4일부터 펼쳐지는 '2025 그린국악'에서는 도립국악단이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어온 전통 가무악희 작품을 보다 세밀하게 집약해 선보일 예정이다.

4일 첫 무대는 국악 관현악 '룡강기나리', 앉은반 사물놀이, 부채춤, 민요 '사철가', 사물놀이 판굿이 장식한다.

11일에는 국악 실내악 '미로', 단막 창극 '사랑가 대목', 강선영류 태평무, 박병천류 진도북춤, 연희마당 '여화신명'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매달 부서별 무대를 강화한 시리즈 공연을 다수 올린다.

오는 18일 '기악 산조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가야금, 대금, 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 단원들만의 채색으로 덧입힌 허튼가락 선율이 관객들을 찾는다.

2월 둘째 주 8일에는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장례 대목, '춘향가' 동헌경사 대목, '흥보가' 제비노정기 대목, '적벽가' 자룡 활 쏘는 대목 등 판소리 인기 대목을 엄선한 '판소리 시리즈'를 무대에 올린다.

3월15일에는 박재희류 태평무와 김진홍류 지전춤, 임이조류 화선무, 이매방류 살풀이, 서한우류 버꾸춤 등 우리나라 대표 명인들의 춤을 한데 모은 '전통 무용 시리즈'를 선보인다.

3월1일에는 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특집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무대에 올리며, 시즌 마지막 주인 3월29일에는 토요특별공연 '신춘음악회'를 통해 봄을 만끽할 예정이다.

총연출을 맡은 조용안 예술감독은 "2025년 전남도립국악단의 목표는 멋과 흥이 살아있는 우리 전통음악을 보다 '가치' 있게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대중적이고 재밌는 공연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국악'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남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관람료 1만원. /최명진 기자

국악방송 태교 음악 캠페인

"함께해서 행복해요"

'기원의 노래'…5일까지 매일 2회 방송

국악방송이 태교 음악 캠페인 일환으로 아가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태교 중 부르거나 듣기 좋은 음악 '기원의 노래'를 제작, 방송한다.

태아의 발달 과정에 따라 아가는 성장하고 임신한 엄마와 가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아는 세상을 만나게 되고 엄마의 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하고 밝은 국악으로 태교를 하면서 엄마와 아가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한 마음이 귀한 아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기획됐다.

감각적인 음악으로 국악을 대중화시킨 강상구 작곡가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사하는 안정아 가객의 노래, 전통부터 퓨전국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사해 온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의 내레이션으로 마음 뭉클해지는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태교음악 '기원의 노래'는 오는 5일까지 국악방송 라디오(광주 99.3㎒)를 통해 매일 2차례 방송된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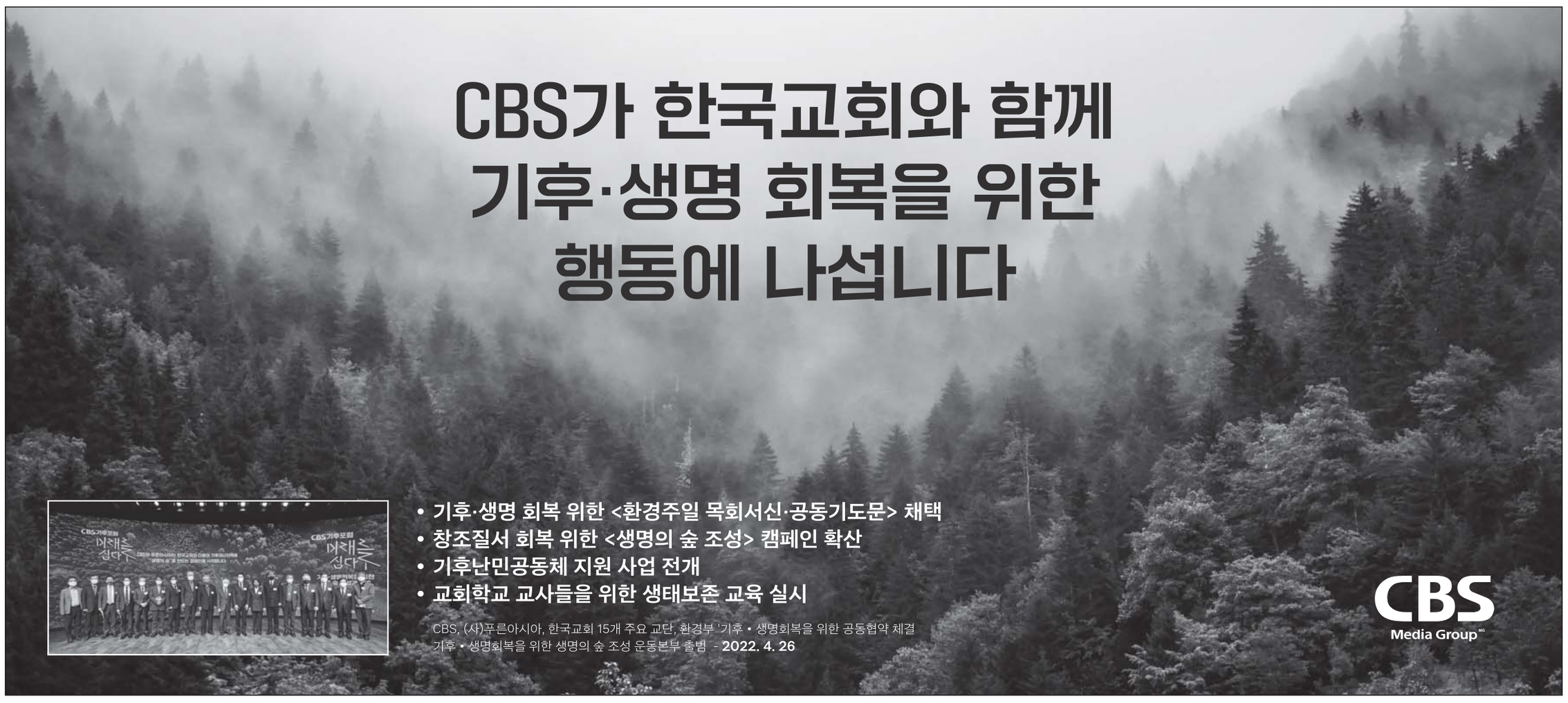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7대 이사장에 노경수 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7대 이사장에 노경수(사진)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노경수 신임 이사장은 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도시계획과 문화적 공간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그는 광주의 도시 역사와 도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시민 삶 속에 융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경수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2005년 설립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후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화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명진 기자